

## 빨리 먹는 반려견 vs. 안 먹는 반려견, 이유와 해결책은?

강아지도 사료를 급하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반대로 잘 먹던 강아지가 갑자기 먹지 않으면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에프타임스' (famtimes.co.kr)가 반려견이 왜 허겁지겁 먹거나 잘 먹지 않는지,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소개했다.

### ■ 빨리 먹는 반려견

사료나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음식이 복구멍에 걸려 질식할 위험이 있다. 사료를 급하게 먹으면 공기를 많이 마시게 돼 음식과 공기가 위장을 확장시켜서 소화도 잘 안 되기 쉽다. 먹은 것을 그대로 게워낼 확률도 커진다. 공기를 계속 마시게 되면 위팽창이라는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 왜 씹지 않고 바로 삼킬까?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반려견의 경우에는 식욕 증진이 되는 약물 부작용 때문이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반려견에게 기생충이 있다면 영양소를 빼앗아 가서 배고픔을 더 느낄 수도 있고 사료 영양가가 낮다면, 식사에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 음식에 집착을 할 수도 있다.



배가 고른 강아지는 저절로 허겁지겁 먹게 되고 자꾸만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 ■ 먹는 속도 조절하는 법

천천히 먹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강아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려견이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자. 사료를 조금씩 여러 끼니로 나눠서 주는 방법도 있으며 빨리 먹는 강아지를 위해 만들어진 슬로우 식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그릇 안에 공을 넣어 먹는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다견가정의 반려견은 빨리 먹는 경우가 많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그릇으로 사료를 급여하면 서로를 라이벌로 인식해 급하게 먹는 경우가 있다. 강아지 밥그릇은 한 마리당 한 개씩 구비해 나눠주는 것이 좋다.

### ■ 갑자기 안 먹는 반려견

강아지가 사료를 갑자기 먹지 않는다면 보호자는 걱정스럽기 마련이다.

강아지도 성향이나 성격이 다르듯 입맛도 다르다. 같은 사료를 계속 줘도 잘 먹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같은 것만 먹으면 싫증을 느끼는 강아지도 있다. 사료에 대한 기호성을 확인하려면 다른 행동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 장난감을 오래 갖고 놀면 질려 한다거나 같은 놀이를 반복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면, 같은 사료를 오래 먹어서일 수도 있다.

### ■ 사료에 질린 걸까?

우선 다른 사료 샘플을 구해서 먹어보는 것을 추



천한다. 기존 사료는 급여해줘도 뒤늦게 먹거나 거의 먹지 않는데, 새로 급여한 사료는 잘 먹는다면 강아지는 기존 사료를 싫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사료와 새 사료를 섞어가면서 주면 된다. 또 평소 간식이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강아지도 사료보다 간식을 더 먹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간식을 줬다면 전면 중단해보자.

건강 문제와 스트레스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보호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산책을 잘 나가 지 못했다면, 스트레스로 사료를 멀리할 수도 있다. 환경 요소로 잘 먹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편안한 공간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사료를 비롯해 다른 간식도 잘 먹지 않고 외면한다면 구강 통증을 비롯해 건강 문제 때문일 수 있다. 이런 경우 강아지 몸을 잘 살펴보고 평소와 달라진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동물병원을 찾는다.



사진/그래픽=shutterstock

##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러 KUNI횃집으로 오세요!!



(714) 752-6658  
www.kunisashimi.com  
7550 Orangethorpe Ave., E100  
Buena Park, CA 90621



**KUNI**  
SASHIMI HOUSE

**OPENING HOURS**  
Mon: Closed  
Tue-Sat: 3PM-12AM  
Sun: 3PM - 10:30PM